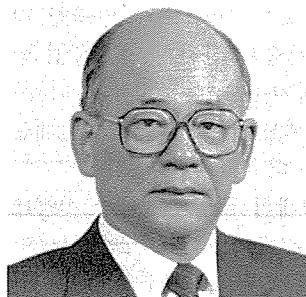


# 韓國과학기술저력과 존재 世界에 과시하는 章이기를…



權彝赫 科總會長

존경하는 科學技術處 鄭根謨 장관님, 閔寬植 科總 명예회장님, 金東一 박사님을 비롯한 科學技術界 원로·선배 그리고 國內外 韓國科學技術人 여러분 !

희망찬 변혁의 1990년대를 맞이하여 오늘 유서 깊은 民族 私學의 요람인 이곳 高麗大學校에서 “世界韓民族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的 역사적인 개회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신 來賓과 科學技術人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해외에서 오랫만에 母國을 찾아오신 同胞 科學技術人과 가족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本 綜合學術大會는 國內外韓國科學技術人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科學技術情報의 교환 및 기술개발을 통한 產業發展과 國際競爭力を 제고하는 등의 목적으로 1974년 7월에 우리 科總이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16년간 연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미비된 여건아래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科學技術開發을 통한 國家發展”이라는 大命題를 수행하는데 나름대로 평가될만한 업적을 쌓아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國內外의 우리 科學技術人들이 한자리에 모여 날로 발전하는 最新 科學技術을 논의하면서 國內 科學技術界의 발전방향이나 방법에 대하여 나침반 역할을 해온 이 學術大會가 지니는 뜻은 중차대한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學術大會가 진지하게 學術的 자료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內的으로는 國內外同胞科學技術人 상호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外的으로는 科學技術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꾀하는 동시에 海外 同胞科學技術人에게는 조국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고 동참토록 하는데에도 크게 이바지해 온 것을 世人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學術大會를 계기로 하여 그간 약 1,600여 명의 同胞科學技術人들이 永久歸國 또는 一時誘致되어 大學을 비롯한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科學技術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주지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尊敬하는 國內外 科學技術人 여러분 !

우리는 지난 半世紀동안 科學技術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왔고, 더욱이 2천년을 향한 福祉社會건설이라는 民族의 지상과제를 향하여 온 國民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길은 혼난하고도 멀다는 것을 재삼 인식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世界 여러나라에서는 資源民族主義를 내세우면서 치열한 技術保護主義와 貿易戰爭의 양상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2천년을 내다보는 科學技術發展長期計劃을 실천하는 일 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東西의 冷戰體制가 점진적으로 해빙되고 있는 새로운 世界秩序의 개편을 주시하면서 전국민이 열망하던 民主化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참다운 民主化를 뒷바침할 國家產業經濟 발전은 오직 科學技術의 진흥과 혁신이 있을 때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본인은 굳게 믿어마지 않습니다.

우리 百萬 科學技術人은 이러한 시점에서 產業發展의 고도화에 필요한 尖端技術의 개발은 물론 기술개발의 원천인 基礎研究의 개발에 과감히 도전하여 기필코 우리의 힘으로 도약의 기틀을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數年間 정부당국에서는 國家次元의 과학기술진흥시책을 활발히 수립, 추진해 오고 있으며 國家元首가 직접 주재하는 科學技術振興會議를 비롯한 과학기술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GNP 대비 연구개발비 5% 달성추구 등 前例없는 政策具現을 통하여 科學立國의 의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도 이러한 국가정책의지에 능동적으로 발맞추어 科學技術人의 단합은 물론 高級 科學技術 인력의 유통 확보와 정책개발, 연구개발풍토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世界韓民族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는 급변하는 國內外 정세에 대처하면서 北韓科學技術者를 초청하고 참가를 권유하였으나 아직까지 회답이 없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中國과 蘇聯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中堅 科學技術者들이 대거 참가하게 되어 명실공히 “韓民族科學祭典”으로서의 막을 열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科學技術 振興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大命題가 이번 大會의 기본이념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여기 모이신 國內外韓國科學技術人 여러분의 어깨

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일층 무겁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綜合學術大會에서는 수학·물리 등 기초과학, 생명과학, 우주·해양·기상, 전자·통신·재료·기계·항공·에너지·핵공학과 더불어 농수산·의약·보건·환경·교통·주택을 비롯한 福祉技術 등 총 30개 분야에서 주목같은 530여편의 엄선된 논문이 연 4일동안 발표될 것이며 진지한 學術的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우리 科學技術界의 성장된 모습을 國內外에 널리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랍니다.

노벨상에 도전하는 세계적인 積學들이 대거 참가하고 특히 女性科學者들이 물리, 전자분야 등에서 발표하게 된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論文發表의에도 大學을 비롯하여 研究機關, 產業體 등을 방문하고 워크숍과 현장기술지도를 갖는 한편 在外科學技術人과 동반가족들을 위한 산업시찰과 가족관광 등의 별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처럼의 방문을 통하여 在外同胞科學技術人 여러분께서는 母國의 발전과 변모된 참모습을 재발견하시게 되리라고 믿고 있으며 母國의 科學技術 발전을 위하여 많은 助言과 指導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本人은 이번의 母國訪問이 여러분의 일생에 귀중한 경험과 추억이 될 뿐만 아니라 祖國에 대한 봉사의 계기가 되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學術大會가 우리의 존재를 世界 속에 과시하는 뜻깊은 章이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世界韓民族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뜨거운 격려를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科學技術處 長官님을 비롯한 政府當局과 경제 4단체, 韓國電力, 電氣通信公社, 浦項綜合製鐵 등 협찬기관 그리고 言論 關係者 여러분께 모든 科學技術人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幸運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